

마지막 한 때 두 때 반 때

작성일: 2012년 7월 7일 새벽 3시 30분경

작성자: 정한솔

(선생님 영이 나온 꿈 계시를 받고 주님께서 1차적으로 풀어주셨으나, 6월 한 달 동안 주님은 2차로 더 깊게 성경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요한복음 17장 이후를 계속 읽게 하셨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시며 기도를 시키셨고, 선생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7월 1일 주일말씀 가운데 답을 주시어 그것을 깨닫고 감사기도를 하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내 사랑아, 너는 진정 이 역사를 믿느냐?

(네, 주님.)

그래, 내 사랑아! 네 선생 이미 영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깨닫는 자의 것이다.
영급의 기도를 하라 하였지?
나는 네게 기도를 시키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에게 새 일 새 이벤트를 주었다.
그것은 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내 사랑아, 진정 깨달아라.
네 선생 영으로 나왔다는 것이 진정 사실임을 깨달아라.
알지 못하니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믿지 못한다.
말씀이 네 선생 아니냐.
이 시대 이 귀한 말씀이 네 선생이 아니냐.
내가 네게 말하였지.
네 선생을 따라가라 말하였지.

너는 지금 네 선생을 따르고 있느냐?
진정 네 선생 따르고 있느냐?
내 사랑아, 내 사랑 섭리야,
너희는 진정 네 선생 따르고 있느냐?
네 선생 이미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데
너희 진정 네 선생 믿고 따르느냐?
믿고 따르는 자만이 네 선생을 만난다.

요한복음 17장 이후부터(요한복음 17~21장)
읽으라 하였지?

내가 육으로 쓰던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살아남이 적혀 있는 구절이었다.
이 시대 섭리와 그 시대 섭리(신약)를
네게 비교하며 말해 주겠다.

보아라, 예수는 십자가를 지었다.
골고다 언덕을 지나 육의 십자가를 짐으로
나의 육이 되어 그 시대 구약의 사람들을
신약으로 이끌어내는 섭리를 폈다.

네 선생을 보아라.
이 시대 나의 육이 되어
내 영의 십자가 지며 이 길을 가고 있음을
너는 진정 깨닫느냐?
이것이 첫 번째 비교다.
보아라, 이 시대와 그 시대를 비교해 보아라.

두 번째,
내 사랑아, 내가 나의 육으로 쓰던 예수가
죽은 지 3일 반 만에 영으로 부활하였지?
그는 예언대로 죽은 지 3일 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나와 영으로 부활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지.
보아라, 이 시대 선생 3년 6개월이 4번 지나는 이
때
영으로 부활함을 보아라.
그 조건이 되지 않자 결국 내 몸 되어
그 시대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지어 줌으로
이 시대 조건을 완성하여
부활역사의 마지막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고 있
다.
그리고 너희 앞에 영으로 부활하였다.

세 번째,
그 시대 그가 부활함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요한복음) 20장을 보아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너무 보고 싶어
무덤 앞에 찾아갔을 때 무덤이 열려 있어 놀라 들어
가 보니
예수가 없음을 알고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였지.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았고,
마리아는 영으로 나타난 나를 예수로 봄으로

내가, 예수가 영으로 부활한 것을 알았다.
그 시대엔 내가 그(나사렛 예수님)였음을,
그를 쓰고 역사했음을 기억하여라.
마리아로 인해 예수가 영으로 부활했음을
다른 제자들도 알게 되었다.
너의 꿈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살아나시다: 요한복음 20장 1~10(절))

보아라.
이 시대 지금 누가 네 선생의 영 부활을 외치고 있
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시대 네 선생이 영으로 부활했음을 외치고 있는
냐?
바로 부흥강사다.
네 선생을 진정 깨닫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영의 부활을 외치는 자,
이 시대 네 선생을 가장 잘 증거하는 자
부흥강사가 아니냐.
가장 사랑하였고, 가장 보고파했으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 두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부흥강사 아니냐.

가장 알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기에
예수가, 선생이 영으로 부활했음을
제일 먼저 깨닫지 않았느냐.
그로 인해 다른 제자들이 예수와 선생이 부활함을
알 듯
그 둘을 보아라.
역사는 그리도 동시성이다.

내 사랑아, 네가 꾸 꿈은 그냥 꿈이 아니다.
네가 본 가브리엘은 그냥 보여진 것이 아니다.
그 꿈은 이 시대 네 선생이 부활했음을 알리는
정확한 이 때의 꿈이요,
가브리엘은 때를 깨달은 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자다.
가브리엘은 오직 하나님의 명으로 움직이는 천사장,
그가 네게 나타남은
이 역사 부활의 때 영의 증거자가 아니겠느냐.
섭리의 영의 부활을 알리는 증거자가 아니겠느냐.
내가 선물로 섭리의 육적 둘을 보여 주었지?
(선생님 말씀에 나온 성자바위와 또 하나의 다른 돌)

가브리엘은 너희 영의 부활을 알리는 영의 증거자로
서
천사장이 나팔 불 때 내가 다시 온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다.

내 사랑아, 그 뒤 성경구절을 보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뒤집어졌지?
이 시대 또한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다.
뒤집어져서 마지막 이 역사 놓치지 말라 성령을 주
었으며,
너희 또한 뒤집어지는 역사,
그 시대(신약)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
다.

베드로는 나를 세 번 부인하였다.
이 시대 너희는 나를, 이 역사를 부인하지 마라.
네 선생을 부인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
냐.
진정 무덤기간을 벗어나는 세 번의 기회의 때
너희는 나를 부인함으로 나를 버리고
기회를 버리는 자들이 되지 마라.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 세 번의 무덤기간을 진정 나를 사랑함으로 벗어
나는 자,
나를 부인하지 마라.
이 역사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나를 깨닫고 뒤집어져, 나를 세 번 부인했어도
나를 세 번 다시 시인한 베드로와 같이
너희는 오직 이 역사 이 무덤기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시인하며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니
할 수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21장 15~17절)

한 때 두 때 반 때, 네게 이것을 공부하라 함은
이 역사의 때를 제대로 깨달으라 함이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 네 선생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으라 함이다.

그가 누구인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왜 말씀을 주는지, 그는 누구의 몸인지...
이 역사를 깨닫은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신의 그릇을 넓혀라.

힘들고 고생 되어도 그릇을 넓혀서
네 선생을, 그리고 그와 함께 역사하는 나 성자를
온전히 받아라.
그 시대 신약시대 나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너희는 어서 영으로 부활한 네 선생을 따라
성령으로 뒤집어지며 부활하여
올해 무덤기간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년엔 그 시대(신약)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역사 나와 함께 완성시켜 가는 자 되자.
네가 진정 깨닫고, 이 말씀 안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함을 알고 기도하니
어서 더 기도하자.

섭리사 나의 신부들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 네 선생을 통한 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요,
너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데리고 감을 진정 깨달
아라.
오직 내 안에서, 오직 이 시대 너희 선생을 통한
중심자 역사에서 낙오되지 말고,
이 시대 이 무덤기간을 다 벗어나
나와 함께 너희 마지막 성령
성약시대 역사를 만들어 가자.
이제 이 시대는 너희와 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다.
나 혼자서도 너희 혼자서도 할 수 없다.

오직 이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내게 나아오는
자,
5월, 8월, 12월의 무덤기간을
진정 네 선생을 시인하고 이 역사를 시인하고
벗어나는 자들만이 나와 함께 이 역사 마무리지어
가겠지.
그리고 천 년 역사,
웅장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겠지.
그것은 오직 네 선생을 통해서,
이 시대 오직 너희 선생 나의 중심자를 통해서이다.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어
이 말을 듣고 이 시대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오직 선생을 깨닫고 선생과 함께 하는 나 성자를
더욱 확실히 깨닫기를 바라며,
이 시간 이 새벽 나 성자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내 섭리사야, 마지막 이 역사
나와 함께 네 선생과 함께 잘 이끌어 가서 만들어
보자.
너희와 함께하길 바라는 나 성자다.
안녕. 사랑한다.